

# 經濟發展과 最適規模 企業의 變化

林 鍾 哲

◁ 目 次 ▷

- |               |               |
|---------------|---------------|
| 1. 머릿말        | 3. 中小企業의 存立基盤 |
| 2. 韓國中小企業의 消長 | 4. 맺는말        |

## 1. 머릿말

1966년에 있었던 中産層論爭에서 필자는 經濟社會에 있어 中産層이라고 볼 수 있는 存在는 生産手段의 독립적인 所有者인(農工商産業에 있어서의) 中小企業이라고 보고 이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하려 하였었다.

- ① 資本主義體制下에서 中小企業은 大企業과의 경쟁에서 살아나갈 가능성이 없다. 그들은 절대적으로는 성장하겠지만 상대적으로는 필연적으로 쇠퇴한다.
- ② 中小企業의 절대적인 성장이 개개의 中小企業에 대한 救濟가 될 수는 없다. 높은 死亡率이 그역시 높은 出生率과 더불어 中小企業의 한가지 특징을 이루는데 진정한 經濟社會의 問題는 언제나 死亡하는 쪽에 있는 것이다.
- ③ 기업의 巨大化가 반드시 勞動排除的인 것은 아니다. 勞動節約의 與否는 技術選擇과 相關된 것이며 大企業이 반드시 勞動節約的 技術을 선택한다고는 할 수 없다.
- ④ 生産의 效率과 分配의 正義는 生産關係에서 배타적으로, 즉 無修正的, 一義的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別個의 政策準據 위에서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는 命題이다.
- ⑤ 지금(當時)의 經濟實情으로 볼 때 中小企業으로 대표되는 中産層에 대한 支援을 하는 것보다는 零細農 및 勞動者 등 下層에 대한 配慮를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 ⑥ 資本主義社會를 성립시키는데 있어 中産層이 하였던 歷史的인 기능을 오늘의 中産層이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때의 中産層과 지금의 그것은 같은 개념의 것이 아니다.
- ⑦ 所得의 上下 50%를 제외한 中間所得層을 中産層이라고 말하는 것은 無意味하다. 그러한 中産層 = 中間階級은 어떠한 經濟體制, 어떠한 時代에 있어서도 50%란 안정된 크기를 가질 수 있다.

이 論爭은 돌이켜 생각하면 다소 時期尙早하였던 것 같다. 필자를 포함한 經濟學者들은 中小企業沒落에 贊反 어떠한 立場을 취하였든 관계 없이 中産層을 C. Mills<sup>(1)</sup>의 舊中間階級的인 範疇의 것으로 파악하였었는데 이 階級은 급속한 몰락의 과정에 빠져 社會의 안정된

筆者: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教授

(1) C.W. Mills, *White Collar—The American Middle Class*, 1953.

계층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社會學者들은 이를 Mills의 新中間階級的인 범주의 것으로 定義하여 論爭에 참가하였는데 당시의 經濟社會的 實情에서 이들은 하나의 의미 있는 계층을 이루기에는 너무도 어리고 脆弱했다. Mills流로 舊中間階級과 新中間階級을 합하여 이를 中産層이라고 한다면 그 크기란 점에 있어서는 의미를 갖게 되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經濟學者는 모두 Mills의 新中間階級을 中産層으로 보는 것을 거부하였고<sup>(2)</sup> 社會學者는 中産層의 主流가 新中間階級이라는 Mills의 主張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고집하지 않았다.

## 2. 韓國中小企業의 消長

1963년에 있어 製造業의 경우 企業體數의 98.7%, 종업원수의 66.4%, 出荷額의 58.5%, 附加價值 生産액의 52.8%를 점하고 있던 종업원수 200명미만의 中小企業의 經濟的 比重은 60년대 이후의 급속한 경제발전과정에서 크게 하락하여 1978년 현재 종업원수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기업체수에 있어 93.6%, 종업원수에 있어 38.1%, 出荷額에 있어 24.8%, 附加價值生産에 있어 26.5%를 점하는데 불과하게 되었다. 그들은 기업체수에 있어서만 多數者일뿐 고용, 市場支配, 富의 새로운 生産 등 모든 면에서 少數者로 전락하였다.

더구나 이러한 量的 成長은 質的인 構造轉換을 수반하면서 진전되었다. 工業化의 초기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일이지만 地域的 分散에 기초한 生必品工業인 輕工業부문의 中小企業은 機械制生産의 導入과 더불어 도태되고 대기업에 의한 市場支配가 진행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1958년까지는 이러한 進行이 있었으며 그것은 1958년의 過剩生産恐慌으로 그 幕을 내린 바 있었다. 奇異하게 생각될지 모르나 그렇기에 1963년까지는 重化學工業부문에 있어 中小企業이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니 이는 <表 3>에서도 볼 수 있다.

<表 1> 中小企業의 比重(1963, 1978)

		기 업 수	종 업 원	출 하 액 (百萬元)	부가가치生産액 (百萬元)
<1963>	中小企業	18,073 (98.7)	266,822 (66.4)	95,427 (58.5)	32,519 (52.8)
	大企業	237 (1.3)	135,159 (33.6)	67,772 (41.5)	29,015 (47.2)
	合 計	18,310(100.0)	401,981(100.0)	163,199(100.0)	61,534(100.0)
<1978>	中小企業	27,955 (93.6)	804,724 (38.1)	5,177,831 (24.8)	2,169,703 (26.5)
	大企業	1,909 (6.4)	1,307,201 (61.9)	15,720,426(75.2)	6,022,739 (73.5)
	合 計	29,864(100.0)	2,111,925(100.0)	20,898,257(100.0)	8,192,442(100.0)

(2) 이는 Mills의 新中間階級인 管理者에 대하여 T. Veblen의인 反感을 經濟學者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는지 모른다.

〈表 2〉 中小企業의 比重(産業別)

(단위 : %)

	1963년			1978년 <sup>1)</sup>		
	종업원	출하액	부가가치	종업원	출하액	부가가치
제조업전체	66.4	58.5	52.7	38.1	24.8	26.5
飲·食·담배	74.0	55.3	41.4	46.8	27.2	20.5
섬유·의복·가죽	55.6	49.1	44.4	35.6	24.4	28.1
나무·나무제품·가구	78.1	66.9	61.8	43.6	32.1	37.4
종이·지제품·인쇄·출판	74.0	63.5	61.2	58.5	45.3	42.3
화학·섬유·설탕·고무·플라스틱	57.7	60.7	57.8	34.1	21.4	24.9
비금속광업	77.9	52.6	53.6	50.4	36.5	41.7
1차금속	64.2	62.1	75.7	34.6	19.5	18.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	74.7	69.9	72.2	33.6	21.0	24.5
기 타	90.0	93.8	89.5	46.8	46.1	45.8

1) 종업원 200명 미만의 기업임.

자료 : 경제기획원 광공업센서스 報告書 各年號

〈表 3〉 産業別 中心企業의 비중

		종업원	출하액	부가가치
〈1963〉	輕工業	161,031(65.5)	57,063(56.0)	18,929(47.2)
	重化學工業	105,791(67.7)	38,643(62.6)	13,590(63.2)
〈1978〉	輕工業	451,805(40.5)	2,573,587(28.3)	1,054,788(27.6)
	重化學工業	352,919(35.4)	2,604,244(22.0)	1,114,915(25.5)

자료 : 〈표 1〉과 같음.

그러나 工業化가 급속히 진전된 1962년 이후에 있어서는 重化學工業部門에서도 同一한 도태현상이 일어났으니 종업원을 기준으로 할 때 重化學工業부문의 中小企業은 105,791명에서 352,919명으로 3.3배 증가한데 비하여 大企業은 50,369명에서 643,594명으로 12.8배나 증가하였으며, 出荷額을 기준할 때는 중소기업은 38,364백만원에서 2,604,235백만원으로 67.9배 증가하는 동안에 대기업은 22,997백만원에서 9,224,330백만원으로 401.1배가 커졌으며, 끝으로 附加價值生産額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13,540백만원에서 1,114,488백만원으로 82.0배 커지는 사이에 대기업은 7,839백만원에서 3,257,136백만원으로 415.5배나 성장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1963년에는 모든 指標에서 압도적인 優位를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던 重化學工業부문의 中小企業도 1978년에는 輕工業부문에 있어서보다도 더 그 相對的인 地位가 약화되었던 것이다.

(3) 현재는 종업원 300명 이하를 中小企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定義에 따를 때 중소기업의 비중은 1978년 현재 企業體수의 96.2%, 종업원수의 47.0%, 출하액의 32.4%, 附加價值生産의 34.9%를 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經濟的 劣位는 여전히 현저하다.

이것은 첫째 重化學工業活動이 生産의 諸條件上 거대한 沈下資本을 요구하므로 대기업에 유리하고, 둘째 技術上 優位와 관련하여 엄청난 規模의 經濟를 주므로 대기업에 유리한 累積的 相乘作用을 한다는 經濟的, 技術的 理由도 있지만, 세째 그에 못지 않게 1962~80년 간에 추진된 工業化가 國威宣陽에 主眼點을 둔 誇示生産的 偏向을 갖는 國家的 事業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 성취=급격한 外形的 成長을 위하여 金融財政上의 直間接支援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밖에도 行政 기타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多元的인 支援이 大企業 偏重的으로 이루어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975년 不變價格으로의 附加價值기준 重化學工業 대 輕工業의 비중은 1962년의 25.8% 대 74.2%에서 1979년의 54.7% 대 45.3%로 커졌다가 1979, 80년의 不況 및 重化學工業支援縮少調整의 결과 1980년의 그것이 53.2% 대 46.8%로 변화하였는데 이러한 構造變革을 수반한 급속한 工業化가 中小企業의 성장을 상대적으로 저해시켰던 것이다.

다만 <表 4>에서 보듯이 종업원수, 출하액 및 부가가치생산액의 1企業體當 平均値를 비교한다면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즉 1963년에는 종업원수에 있어 38.0 대 1, 출하액의 경우 54.0 대 1, 부가가치생산액은 68.1 대 1이던 것이 1978년에는 각기 23.6 대 1, 44.5 대 1 및 40.7 대 1로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첫째로는 1963~78년간에 중소기업은 18,073개 업체에서 27,955개 업체로 절대적으로는 9,882개 늘어 237개 업체에서 1909개 업체로 1,672개 증가한 대기업보다 절대적으로는 크지만, 상대적으로는 대기업 기업체수의 증가율이 705.5%인데 비해서 중소기업의 그것은 54.7% 밖에 안 된다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

높은 출생율과 높은 사망율을 기본특징의 하나로 삼고 있는 中小企業에서 1963~78년을 통한 純出生率이 연평균 36.0%로서 대기업의 47.0%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그간의 政治制約의 企業風土가 중소기업활동에 불리하여 중소기업 규모의 절대적 거대화<sup>(4)</sup>와 더불어

<表 4> 規模別平均量의 比較(企業平均)

		종업원	출하액 (百萬元)	부가가치성장액 (百萬元)
<1963>	中小企業	15	5.3	1.8
	大企業	570	286.0	122.4
	比率(中小企業=1)	38.0	54.0	68.1
<1978>	中小企業	29	185.2	77.6
	大企業	685	8,234.9	3,154.9
	比率(中小企業=1)	23.6	44.5	40.7

자료: <表 1>에서 作成

(4) 중소기업의 企業體當平均規模는 종업원을 기준할 때 1963년의 14.8명에서 1978년의 28.8명으로 94.6%, 출하액을 기준할 때 5.1백만원에서 26.3백만원(=1963년 不變價格)으로 415.7%나 커졌다.

어 自由參加를 막고, 다른 한편 大企業과의 提携 등이 높은 死亡率을 막아서 그 결과 既得權을 가진 中小企業이 健實化되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62~80년간의 경제성장 과정에 있어 大企業은 外形的 成長에만 置重한데 반하여<sup>(5)</sup> 特惠的 支援에서 疎外되는 中小企業 특히 輸出窓口를 직접 가질 수 없었던 重化學工業關聯 中小企業은 外形的 成長의 위험한 길을 걸을 필요가 없었으며, 그 결과 內實있는 성장에 置重하였고 그것이 상대적 격차의 축소를 가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종업원 1인당 附加價值生産性 隔差는 1963년에는 100대 56.5이던 것이 1978년에는 58.6%로 2.1%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는 달리 他人資本依存度를 높일 수 없으므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견실한 財務構造를 갖게 되고, 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종업원 기준 企業規模가 2배 가까이 커짐으로써 適正規模에 進一步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 3. 中小企業의 存立基盤

筆者는 1964년 經濟科學審議會議에 제출한 研究用役報告書에서 中小企業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中小企業끼리 垂直的 또는 水平的인 企業結合 또는 提携를 함으로써 대기업과 경쟁적 승리가 가능할 만큼 스스로의 힘을 巨大化시키는 것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法에 의하여 中小企業의 안정된 市場에 대기업이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最適規模가 있으며 그것이 코스트면에서 중소기업에 優位를 줄 수는 있지만 대기업은 코스트를 무시한 侵略的 덤핑이 가능하므로 中小企業에 적합한 最適技術 및 最適規模—中小企業 生産原價의 絶對的 低廉이 競爭市場에서의 중소기업의 승리와 生存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sup>(6)</sup> 대기업이 기업당 평균고용량을 1963년의 570명에서 1978년의 685명으로 겨우 20% 확대시키는 동안에 중소기업은 이들 15명에서 29명으로 거의 100% 증가시켰다는 것이 <表 4>에서 본 바와 같은 중소기업의 상대적 堅實化의 가장 중요한 원인중 하나라면 연전의 필자의 주장은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상대적 비중이 하락한다는 연전의 주장과 더불어 事實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기업이 더욱 더 거대화하고 또 多國籍化해가는 엄연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5) 1968년 이후 특히 1962년 이후의 企業活動은 정부의 特惠支援없이 이루어질 수 없었는데 特惠支援의 크기는 예컨대 무역의 경우 純受取額 또는 純受取率이 아닌 단순한 外形額인 輸出額을 기준하여 결정되었으며 그것이 負의 附加價值生産性下的 輸出企業성장 및 輸出增大를 가져왔던 것이다.

(6) 拙稿, 中小企業育成的 具體的 方案, 서울商大附屬韓國經濟研究所, 1964.

巨大企業의 몰락을 推論케 하는 몇가지 주목할만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궁극적으로는 資本主義의 變質까지도 전제하는 것이므로 資本主義的 發展의 틀안에서의 中小企業의 相對的 衰退를 論한 종전의 筆者의 出發點, 그 前提와는 다른 것이나 中小企業繁盛論者<sup>(7)</sup>뿐만 아니라 物質主義文明批評者에게도 장래에 대한 밝은 展望을 주는 것으로서 극히 주목할 만하다.

### ① Scitovsky理論

1976년의 新著에서 T. Scitovsky는 市場은 金權支配 (plutocracy)와 暴民支配 (mob rule)로 分極化된다고 주장하였다. 現代資本主義가 Smith의인 의미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Schumpeter의인 의미에서도 이미 資本主義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변질되어 R. Heilbroner가 이를 福祉資本主義라고 부를 만큼 非資本家的 經濟組織化되었지만 生産手段에 대한 私的 所有가 원리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한 所得은 그 發生의 源泉에서부터 不平等性을 갖게 되며, 어떠한 再分配政策하에 있어서도 高所得層은 적어도 當代에 한해서는 항상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經濟社會의 生産力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所得의 絕對的 隔差는 커지고 그 결과 個人的 嗜好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所得의 制約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絕對富裕層이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所得의 限界效用이 零에 가까운 이들 絕對富裕層은 生産코스트의 如何에 상관없이 企業으로 하여금 자신의 需要構造에 맞는 소량의 高級財를 생산케 할 수 있으며 또 실지로 생산케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市場의 일부에는 名實相符한 消費者主權이 金權支配의 바탕위에서 성립하게 된다.

한편 여하한 代價라도 지불할 수 있는 소수의 絕對富裕層을 제외한 나머지 소비자들은 생산자로 하여금 자신의 嗜好에 맞는 상품을 그들이 지불할 수 있는 낮은 價格으로 생산케 할 수 없다. 다만 이들은 그 數에 있어 절대다수이므로 그들의 적은 수요를 국민적인 규모에서 集計하면 生産을 가능케 할 만큼 큰 有效需要를 창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그들의 需要의 質的 側面은 配慮될 수 없다. 그들의 수요는 그 異質性을 포기하지 않는 한 集計될 수 없어 生産을 가능케 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은 수요의 質的 側面을 포기하고 標準化된 規格品을 받아들임으로써 大量生産을 통한 코스트 다운을 실현시켜 供給을 보장 받는다. 개개인의 嗜好가 완전히 무시된다는 의미에서 그 市場은 暴民支配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바탕으로 확립되는 것은 生産者主權이라 할 수 있다.

결국 金權支配의 경우에는 量이 적은 대신 質이 보장되며 暴民支配의 경우에는 量이 확

(7) 다만 이들에게는 그들에게 排他的 決定權의 行使를 보장해주는 資本主義體制 그 자체를 보장해 주지 않으므로 결코 福祉라고는 할 수 없다.

(8) T. Scitovsky, *The Joyles Economy*, 1976.

보되는 대신 質의 희생이 강요된다. Scitovsky는 所得의 分極化와 이에 따른 需要構造의 分極化라는 현대자본주의경제의 특징은 質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生産을 가능케 할 만큼 높은 所得을 갖고 있지 못한 中間所得階級の 사람들, 그러면서도 消費生産의 質의 抛棄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강한 個性을 갖고 있는 中間階級の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무미건조한 經濟 (joyless economy)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經濟成長과 관련하여 바로 金權支配的 需要에서 中小企業의 안정적이며 더욱 커져가는 存立基盤을 찾을 수 있다. 金權支配的 需要의 대상이 되는 財貨는 品質에 중점을 두어 小量生産되는 것이므로 規模의 經濟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표준화된 規格品을 대량생산하는 巨大企業의 生産領域에는 속할 수 없고 중소기업에 적합한 것이다. 따라서 金權支配的 需要가 존재하는 한 中小企業은 採算性있는 生産活動을 계속할 수 있다. 金權支配的 需要는 所得分配의 不平等이 존재하는 한 계속 나타날 수 있으며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資本主義體制가 그 마지막 基本特徵을 保持하는 한, 즉 자본가에 의한 生産手段의 私의 所有가 완전히 금지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品質爲主의 小量生産은 계속되며 이러한 경제활동에 적합한 中小企業은 그 확고한 存立基盤을 유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品質중심의 小量需要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相互排斥的인 可能性 때문에 어느 쪽 가능성이 現實化되든 장래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증가할 확율이 매우 크다. 첫째 종래와 같이 經濟成長 즉 富의 絶對的 增加를 經濟體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계속 삼을 경우 中間所得階級은 지금까지 非自發的으로 속해 있지 않을 수 없었던 暴民支配的 需要를 버리고 처음에는 단계적으로 나중에는 전면적으로 金權支配的 需要측에 가담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暴民支配的 需要가 소비자의 自主的인 選好體系의 결과 발생한 것이 아니라 所得이 적기 때문에 강요된 수요이며, 暴民支配的 需要의 上層에는 이러한 지배에 대한 反撥이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品質의 상품을 자신이 필요로 하는 수량만큼 확보할 수 있기에 충분한 소득이 보장될 때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需要構造 중 暴民支配的인 것을 金權支配的인 것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이것은 品質에 대하여 高級性 뿐만 아니라 專門性도 주어 個性있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에 가장 적합한 성격을 가진 中小企業에 대하여 더욱 더 증가하는 有效需要를 창조해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과거 成功的인 중소기업이 그랬던 바와는 달리 生産活動이 순조로워짐에 따라 巨大企業化 되지 않고 專門性이 허용하는 한도안에서 그 規模에 따라서 企業成長이 제한되며 有效需要의 절대적 증가는 중소기업의 量的 擴大 아닌 數的 增加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 한편 중소기업의 最適生産을 보장받는 企業이 數的으로 커지면 規格

化, 分業化, 同時化, 集中化, 極大化 및 中央集權化라는 資本主義工業經濟社會의 6大支配原理에 의하여 大企業用 중심으로 偏向되었던 技術革新이 그 性格을 달리하여 中小企業生産을 위한 것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價格의 相對的(質에 대하여) 또는 絶대적 하락을 통하여 金權支配的 需要층의 肥大와 暴民支配的 需要층의 축소를 가져옴으로써 善循環 virtuous circle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經濟體制의 價値觀이 달라져서 量的 擴大보다는 質的 向上을 經濟活動의 主要 目的으로 삼을 경우 중소기업은 보다 더 확실하고 큰 存立基盤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經濟社會는 금권지배적 수요와 폭민지배적 수요라는 異質的 需要構造를 溫存한 채 後者를 축소시키고 前者를 확대시키는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하여 絶대적, 相對적으로 유리한 市場機會을 주는 成長社會의 與件과는 달리 生産構造 그 자체를 人間の 先天的 需要構造에 맞게 변화시켜 표준화된 規格品의 대량생산이란 특징위에 존립하고 있는 巨大企業의 生存 그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여 이를 중소기업의 기업단위로 分解시킬 것이다. 이 경우 中小企業이라는 개념은 獨占資本主義 단계 이후에 있어서의 그것과 같이 大企業과 대립되는 相對的인 것이 아니라 市場規模에 대비한 企業規模 그 자체에 기준한 絶對的인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 경우의 중소기업은 Smith가 渴望하였으며 Mills가 애석한 마음으로 吊辭를 읊었던 競爭資本主義단계의 企業과 동일한 내용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물론 기업규모에는 크고 작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同質的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同一商品市場에서의 경쟁자가 아니다. 전혀 異質的인 수요충족에 종사하는, 크기 그 자체의 相異도 商品의 異質性에서 오는 規模의 最適性相異에 말미암은 異商品市場간에 있어서만 규모의 相異는 있을 수 있다. 따라서 獨占資本主義의 성립 이후 중소기업이 겪어왔던 大企業에 의한 競爭的 淘汰 또 兩者간의 支配從屬이란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규모, 따라서 資本所要는 과거 小商品生産의 세계에 있어서와 같이 작지는 않겠지만 金融産業의 앞으로의 발전을 생각할 때 별다른 어려움없이 누구나 最適規模를 실현시킬 수 있을 만큼 작을 것이다. 그러므로 品質爲主로 다양하게 差別화된 單一商品을 중심으로 거의 완전히 규모가 같은 다수의 그리고 地域적으로 고루 분산된 중소기업의 기업이 生産을 主導할 것이다. 이들 사이에도 競爭的 淘汰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요구조가 品質爲主로 細分化되어 있다는 사실은 競爭資本主義에서 獨占資本主義로의 移行이란 歷史的 過程 및 그 이후에 있었던 것처럼 경쟁에서 승리한 기업의 巨大化를 沮止한다. 왜냐하면 巨大企業은 규격화, 표준화 그 결과로써 品質의 劃一化를 통한 質의 회생 위에서 성립되고, 이는 質이 아니라 量的 존중하는 成長主義價値觀의 보급에 의해 가능



했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量보다는 質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社會의 價値觀이 바뀌었을 때 質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는 企業規模의 巨大化는 허용되지 않는다. 巨大企業은 그 存立基盤을 잃고 大企業·中小企業간의 갈등은 자연적으로 해소된다.

成長主義的 價値觀은 백만년 人類歷史에 있어 최근 3~4백년간에 나타났던 것이며 그것도 政治的 經濟的 權力者가 자신의 富와 權力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意圖的으로 宣敎함으로써 생겨났던 것으로<sup>(9)</sup> 결코 人間性 本然에 뿌리박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價値觀은 重商主義時代 유럽에서 발생하였지만 유럽人種에 의해서만 받아들여졌고 全國民的인 규모에서는 日本만이 예외적으로 그러한 價値觀을 받아들였을 뿐이며 최근 韓國이 그 충실한 追從者가 되고자 하고 있을 뿐 나머지 국민들에 의해서는 거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價値觀의 產母인 유럽人種 자체내에서 成長至上主義, 物質主義에 대한 否定이 커지고 있다.<sup>(10)</sup> 巨大企業의 탄생을 가능케 하였던 이같은 價値觀의 변화는 당연히 中小企業에 대하여 生存의 가능성을 排他的으로 부여할 것이다.

그러나 수요구조의 이같은 변화가 巨大企業의 存立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工產品인 最終消費財의 경우에는 量에서 質로의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巨大企業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競爭的 優位는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1次產品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은 부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商品의 同質性이 큰 대부분의 1次產品의 경우에는 규모의 거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크니 穀物生産 또는 鑛業生産 등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加工産業의 경우에 있어서도 中間財生産에 있어서는 品質의 相異가 없거나 거의 무시할 수 있는 生産活動分野가 많고 이러한 분야에서는 量에서 質로의 價値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巨大化는 계속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끝으로 서비스 産業에 있어서도 金融保險業 등에서는 巨大化로의 움직임이 여전히 진전될 것이다.

## ② Toffler理論

최근의 著書<sup>(11)</sup>에서 A. Toffler는 規格化, 分業化, 同時化, 集中化, 極大化, 中央集權化란 6大原理 위에 세워졌던 人類社會에 근본적인 變化가 일어나고 있으며, 1955~65년부터 美國에서 일기 시작한 이러한 構造變動은 生産과 消費는 물론 技術體系, 社會組織 및 價値觀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의 人間社會를 과거의 農

(9) L. Robbins,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1968.

(10) E.F. Schumacher, *Small is Beautiful*, 1974. 또는 M.A. Lutz and K. Lux, *The Challenge of Humanistic Economics*, 1979.

(11) A. Toffler, *The Third Wave*, 1980.

耕社會, 현재의 工業社會와는 모든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분석, 豫測하고 있는 그의 거창한 社會理論을 中小企業과 관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주장에만 국한시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技術體系의 변화를 본다면 우선 에너지體系에 있어 石炭, 石油, 原子力 등 枯渴性 資源의 集中的 大量生産이라는 특징 위에 서있던 第二波動期 에너지體系는 무너지고 太陽熱, 地熱, 강력한 小型蓄電池 등 再生可能하고 소규모이며 넓은 범위에 散在하는 多樣화된 에너지體系가 등장하고 있으며 현재의 에너지體系를 代替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둘째로 情報體系에도 변화가 생긴다. 市場經濟에 있어서의 知識=情報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그 有無가 純粹競爭을 그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가, 또는 보다 완벽한 상태인 完全競爭으로 전환시키려는가 하는 가능성의 구실을 하고 있다<sup>(12)</sup>는 단순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T.V.의 出現을 통해 그 絶頂에 달한 第二波動期の 情報體系는 情報受容者の 嗜好, 따라서 수요구조와는 관계없이 劃一화된 情報를 全國規模를 넘어 全世界的인 규모로 전달하는 내용의 것이었다. 新聞, 通信, 라디오, T.V. 등 모든 매스 미디어의 기본특징은 規格화된 情報의 同時傳達이었고 그것은 規格화된 嗜好=同質的 需要를 창조, 관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기능은 巨大企業의 生産組織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J.K. Galbraith의 지적<sup>(13)</sup>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분명하다. 그런데 Toffler에 의할 때 그 역시 極大化一略를 걸어왔던 第二波動期の 情報體系가 1977년을 고비로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소규모의 視聽者 그룹을 수없이 만들어 내어 그들의 同質的인, 質 중심의 한정된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케이블 T.V.가 급속히 늘어나서 매머드化한 T.V. 産業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째로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技術 및 情報體系의 變質은 生産體系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선 長期稼動에 의하여 백단을 단위로 하는 同一規格製品을 생산하던 第二波動期的 大量生産樣式이 第二波動期的 産業 내부에서 붕괴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일본, 서독, 미국 혹은 蘇聯에서조차도 電氣製品, 化學, 航空宇宙, 電子工學, 特殊車輛, 通信 등 각 産業分野에서 少量多種生産化의 경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하고 있다. 規格品大量生産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年需産業에 있어서조차도 예컨대 Z戰鬪機는 한번에 10~50대만 생산될 뿐아니라 最終製品數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에 지출한 91억달러의 美國防省支出중 78%에 해당하는 71억달러가 생산량 100 이하의 軍需品購入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한다. 현재도 자동차, T셔쓰를 비롯하여 大量生産과 少量生

(12) A.W. Stonier and D.C. Hague, *A Textbook of Economic Theory*, 1953.

(13) J.K. Galbraith, *The New Industrial State*, 1967.

産의 중간형태를 취하는 생산이 많은데 이 단계를 지나면 완전한 注文生産, 고객個人에 맞춘 注文製品인 一種一點生産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sup>(14)</sup> 한편 第二波動期的 産業의 生産組織 및 規模變化와는 별도로 당초부터 質을 무시한 量産이 아니라 量보다는 質을 중요시하는 第三波動期經濟活動을 담당할 새 産業이 成長主力産業으로 등장하게 된다. 컴퓨터와 데이터處理, 光纖維, 超 LSI, 海洋開發産業, 遺傳子産業, 量子電子工學, 情報理論, 分子生物學, 海洋學, 原子核物理學, 社會生態學, 宇宙科學 등과 같이 최근 4半世紀 동안에 태어나서 자란 새로운 學問의 尖端에서 개발된 산업이 第三波動期 生産활동의 主力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은 manufacture라는 말보다는 biofacture란 말이 적합할 만큼 質에 고도하게 집중되고 量을 무시한다고 한다.

네째로 기술체계 및 정보체계의 변화에 따라 勞動組織 및 그 社會的 性格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다. 第二波動的 生産組織은 第一波動期까지는 生産과 消費의 不可分의 一體를 이루고 있었던 家庭을 파괴하여 家庭은 소비의 單位 household로 변질시키고 生産은 가정에서 遊離된 工場에서 分業化, 同時化, 集中化, 極大化 및 中央集權化의 原理에 따라 生産者=勞動者의 個性 및 才能과는 관계없는 規格화된 商品製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技術의 고도한 發達は 機械裝置의 小型化를 통하여 이를 工場에 집중시키는 대신 근로자의 住居에 장치할 수 있게끔 하고 情報는 컴퓨터端末裝置를 통하여 자신의 居處에서 전달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體系의 변화는 住居내에서의 모든 生産활동을 위해 필요한 일체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사람들은 통근하는 대신 자신의 집에서 生産활동에 종사하며 필요한 資材와 情報가 근로자 대신 움직이게 된다.

이러한 상태는 현재에도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sup>(15)</sup>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大企業이 쇠퇴하고 중소기업이 隆盛해진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勤勞者住居를 生産工場化하는 것과 관련된 資本所要, 技術利用, 그리고 製品의 販賣 등을 생각한다면 大企業에 오히려 한층 더 큰 競爭的 優位를 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Toffler는 이러한 第三波動期的 經濟組織形態變化가 끝내는 第二波動期에서 遊離되었던 生産과 消費를 재결합시켜

(14) 「현재는 일반적으로 대량생산 보다 주문생산이 어렵지만 이윽고는 주문생산이 대량생산보다 쉽게 될 것이다. 대량의 모듈(module)을 생산하여 그것을 조립해서 만드는 모듈方式에서 일보진 전하여 단순명쾌한 주문생산의 영역에도 달하려 하고 있다. 마치 양복을 맞추는 것과 같다」고 랜드러의 情報서비스部長 R.H. Anderson은 말하고 있다. cf. A. Toffler, *op. cit.*.

(15) 「실제 이곳에서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1천명이다. 기술적으로는 대충 그중 250명은 가정에서 일할 수 있다. 資材供給業務는 복잡해지겠지만 필요한 기계와 경비를 투입하면 틀림없이 가능하다. 또 화이트칼라 근로자에 의한 조사개발 부문에서도 컴퓨터의 端末機에 투자하면 반수에서 4분의 3에 이르는 사람이 가정에서 일할 수 있다」고 Hurett-Packard 工場의 生産부장 Howard는 말하고 있다. cf. A. Toffler, *op. cit.*.

生産的 電子住宅 (electronic cottage)에서 需要의 상당부분을 스스로의 生産活動에 의하여 직접 충족시켜 주는 소위 生産消費者 (prosumer)의 시대를 탄생시킬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既成服을 사는 대신 電子裁縫機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카세트 테이프를 사서 필요한 의복을 자신의 嗜好에 맞게 바느질해 낼 것이다. 그 결과 人間勞動 中 市場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은 크게 줄어들고 그 결과 脫市場化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Toffler는 전망한다. 市場의 消滅 내지 衰退가 市場經濟의 바탕 위에서 市場의 擴大와 企業規模의 巨大化를 同時的으로 실현시켜온 企業에 대하여 갖는 衝擊은 至大하다. 그런데 이러한 經濟的 氣象變化가 巨大企業에 더 불리할 것이나 中小企業에 불리할 것이나 하는 것은 一義的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른 條件이 같은 한 市場의 쇠퇴·축소는 大企業이 남긴 市場餘白을 먹고 사는 中小企業에 대하여 致命的인 打撃을 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Toffler의 세계에 있어 다른 사정은 같지 않다. 첫째, 에너지, 정보, 기술체계의 변화가 巨大企業에 불리하다. 둘째로 經濟成長에 따르는 生産財 또는 消費財의 限界效用은 더욱 遞減하여 零에 접근함으로써 量的 供給의 증가보다는 量的 減少를 수반하더라도 質의 改善을 바라는 消費者選好體系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 결과 이러한 經濟的 氣象變化를 맞이하여 巨大企業은 마치 氷河期의 시작과 더불어 거대한 파충류들이 겪은 바와 같은 苦難의 時代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③ Galbraith理論

J.K. Galbraith<sup>(16)</sup>의 경우도 中小企業의 殘存可能性 그 자체를 論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citovsky나 Toffler보다는 이 문제를 좀더 正面에서 다루고 있는데 中小企業의 生存可能性에 대해 그가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기업의 巨大化는 組織을 바탕으로 技術의 支援下에 加速化된다. 그런데 經濟活動 中에는 구성단위의 성질상 조직을 거부하거나(藝術 등의 경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조직이 곤란하거나(農業의 경우), 혹은 法에 의하여 조직이 금지되어 있거나(自由專門職의 경우) 하기 때문에 巨大化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들은 巨大化할 수 없기 때문에 市場價格을 지배할 수(price maker or price leader) 없고 오히려 市場의 支配를 받는 存在(price taker)가 된다. 뿐만 아니라 量產指向的인 현대의 技術革新에 대한 受容能力도 작다. 따라서 市場과 技術 두 가지 면에서 巨大企業에 비하여 불리한 立場에 서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部門만이 中小企業에게 生存可能性을 독립적으로 부여해 주는 유일한 부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中小企業 고유의 活動領域은 이를 가능케 하는 여러가지 특징 중 특히

(16) J.K. Galbraith, *The New Industrial State*, 1967, *Economics and Public Purpose*, 1973 및 *The Liberal Hour*, 1960.

藝術的 成就品質爲主의 생산활동에서 가장 큰 可能性을 개척할 수 있다고 한다.

Galbraith에 의할 때 藝術家는 본래 독립된 個人企業家이며 뿐만 아니라 財貨를 만드는 데는 얼마간의 藝術家의 努力이 필요하고 製品이 藝術性에 의해 평가될 때 중소기업이 갖는 藝術的 優位는 巨大企業과의 경쟁에서 中小企業이 이길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조직규율이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으므로 예술가는 個性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그 결과 디자인도 훨씬 좋아질 수 있다. 특히 主導權을 예술가가 쥐고 있을 경우에는 生産過程에서 강요되는 投入·產出의 效率性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技術的 效率은 떨어지겠지만 藝術的 優位가 크게 提高되어 品質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은 衣類裝身具, 寶石, 時計, 기타 家庭用具의 製造活動에 있어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으며, 또 앞으로 品質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他製品의 경우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활동영역과 활동규모는 확대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技術集團을 權力的 核으로 삼고 있는 巨大法人企業이 計劃化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주요 부문을 지배하고 있는 新産業體制下에서는 藝術的 成就를 經濟的, 社會的 貢獻의 尺度로 삼고 있지 않지만 長期的 眼目으로 볼 때는 소비생활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어느 時點에서는 美에 대한 人間性 本然에서 출발한 관심이 높아질 것은 충분히 예상되며 그렇게 되면 藝術과 藝術品은 경제발전에 대하여 더욱 큰 중요성을 갖게 되며 끝내는 科學과 産業工學이 갖고 있는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둘째, 大企業의 발달은 中小企業活動을 위한 市場의 餘白을 축소시켜 가기도 하지만<sup>(17)</sup> 그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활동을 위한 새로운 空間을 특히 서비스産業분야에서 창조해 준다고 Galbraith는 주장한다. 즉, 技術集團을 權力的 頂點으로 한 巨大法人企業의 位階秩序는 여성을 단순노동자나 僞裝奴隸 crypto-servant의인 地位에 머무르게 하는 男性優位의 不平等社會를 완성시켰고 이러한 상태에 女性을 묶어 놓기 위한 代價로서 종래 女性이 담당해 왔던 세탁, 요리, 재봉, 청소, 庭園가꾸기 등 일부 家事勞動이 主婦의 손을 떠나 전문적인 서비스企業體에 맡겨지는 과정에서 中小企業에 의한, 地域的 限界性을 갖는 서비스産業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Galbraith는 分析한다.

그에 의할 때 巨大法人企業으로 구성된 計劃化體制는 본래 性에 의한 差別에 바탕을 둔 不平等社會이므로 여성을 위한 適合한 活動餘地는 적다. 따라서 計劃化體制의 발달에 비례하여 증가되는 여성의 불만을 달래기 위하여 電氣冷藏庫, 眞空清掃機, 電氣洗濯機, 電氣調理機, 自動食器洗滌機, 에어컨 등 여성의 家事勞動節約的 器具 및 倦怠解消的 器具가 巨大

(17) cf. J. Steindl, *Small and Big Business: Economic Problems of the Size of Firms*, 1947.

企業에 의해 생산공급된다. 그 결과 巨大企業은 한편으로는 不平等主義의 權力構造, 經濟的 位階秩序를 여성의 挑戰으로부터 事前防備하고 다른 한편으로 스스로의 活動分野를 확대 한다는 一石二鳥의 성과를 거둔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긴 大企業發展의 副產物, 計劃化 體制의 補完要求的 產物이 서비스產業에 있어서의 中小企業의 새로운 活動領域이라고 Galbraith는 주장한다.

세째, Galbraith는 中小企業主의 自己搾取 및 從業員搾取가 그 存立의 한 條件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Steindl이래로 있어 왔던 것이지만 대부분은 中小企業勞動者에 대한 低賃金論에 집중되었지 中小企業의 낮은 利潤率을 중소기업주 자신의 低報酬=自己搾取로 본 것은 그가 처음이다. 中小企業主는 대기업과는 달리 規則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率先垂範의 監督에 의하여 종업원의 노력 極大化를 유인한다. 그런데 자신의 노동에 대한 보수를 낮게 책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法律은 있을 수 없으므로 從業員報酬抑制를 금지하는 法에 대해서 이들 中小企業主는 강력히 반대한다. 그는 자신에게 요구한 것을 당연히 남에게도 요구할 權利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향은 농업에서 가장 현저하니 농민이 자신과 그 가족을 착취하는 것은 옛부터 인정되어 왔고 社會的 美德으로 생각되고 있지만 Galbraith는 이것이 美德이 아닌 편리한 社會的 美德 (convenient social virtue)이라고 지탄한다. 농민과 더불어 小郡市의 소매상인, 소규모의 제조업자, 加工業者, 그밖의 中小企業主들이 勞動組合을 비롯하며 賃金이나 勞動時間에 관한 法律, 社會保障에 관한 법률, 기타 勞動條件을 둘러싼 諸規制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이들의 經濟活動과 生存 그 자체가 勞動者搾取와 이를 正當化시키기 위한 先行要件으로서의 自己搾取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勞動保護의 諸法律의 立案과 그 實施를 거부할 수 있는 한, 그리고 그러한 法律의 실사가 불가피해졌을 경우에는 自己搾取率을 높일 수 있는 한, 그 生存을 유지할 수 있다.

福祉를 앞세운 大型政府 (big government), 技術의 命命에 더욱 충실해 지려는 巨大企業 (big business),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강력해진 大型勞動組合 (big trade union)의 三頭馬車的 牽制와 均衡을 이루면서 발달해 온 資本主義發展의 지금까지의 역사에 비추어 본다면 Galbraith 理論 중 中小企業에 대하여 生存과 活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첫째 根據 뿐이다. 둘째 근거는 大企業에 대한 中小企業의 體制的 隸屬을, 셋째 根據는 중소기업의 희망을 약속할 뿐이다. Toffler와는 달리 Galbraith는 이러한 新產業體制가 앞으로의 支配的 特徵으로서 資本主義 및 共產主義라는 體制的 相異를 초월하여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지 Galbraith 理論의 특징은 그의 市場體制=中小企業殘存論을 事實에 대한 分析과 豫測으로 그치지 않고 當爲의 政策命題를 위한 理論的 基礎로 活用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

다. 그는 新産業體制下에 있어 市場體制的 쇠퇴와 計劃化體制的 肥大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균형을 깨뜨리고 社會發展을 저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相殺經濟力 (countervailing power)으로써 市場體制를 육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있어 中小企業은 事實的인 命題로서 보다는 當爲的 命題로서 훨씬 더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

#### 4. 맺 는 말

Mills는 「小企業家の 世界는 中流階級을 기반으로 한 古典的 資本主義路線에 따라 構築된 것으로…필요한 최소한의 財産保護手段과 傳統의 힘만에 의지하며 自動的 均衡을 유지할 수 있는, 경탄할 만한 自然調和의 세계였으며…그 社會의 運行原理였던 競爭은 自由로운 個人을 탄생시키는 수단이며 英雄의 試金石이며 文字 그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獨立獨步의 생활을 실행케 하는 수단이었고…古典的 自由主義者의 生活樣式의 中核이기도 하였다」<sup>(18)</sup>고 이를 極讚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있어 그들의 機能과 意義는 資本主義 成立過程에서 그들이 하였던 歷史的 機能 및 그들이 지녔던 歷史的 意義와는 오히려 正反對의 것이 되어가고 있다.

첫째, 그들은 이미 經濟發展의 主役이 아니라 大企業에 대하여 從屬的인 機能밖에 수행할 수 없는, 그리고 흔히 資本, 技術, 市場 등 모든 면에서 隸屬的인 存在로 轉落하였다.

둘째, 그들은 社會發展의 主役의 자리에서는 완전히 밀려났다. 大型政府, 巨大企業, 강력한 勞動組合이란 三角의 社會勢力集團에 끼어 그들의 구실은 극단적으로 弱化되면서 동시에 反福祉的 反動化하였다.

셋째로 技術革新에 있어서도 그들의 機能은 크게 약화되었다. 技術革新이 作業場內 必要에 의해서가 아니라 知的 探究의 副產物로서 專門의 研究機關에서 방대한 研究開發投資의 결과로서 이루어진다는 外生化된 技術開發메카니즘下에서 技術革新에 있어서의 中小企業의 중요성은 급격히 하락하지 않을 수 없다.

네째로 社會安定이란 면에서도 中小企業의 중요성은 크게 줄었다. 미국의 경우 1870년에 中間階級の 83%를 점했던 中小企業은 1940년에는 42%로 半減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white collar 노동자의 급격한 증대와 blue collar 勞動者의 경제적 지위의 급격한 상승 등에 의하여 戰後에는 더욱 加速化되고 있다. 따라서 1700~1875년간의 競爭資本主義 단계에 있어 중소기업=小商品生産者가 발취하였던 社會安定機能 그리고 小商品生産者의 沒落 위에

(18) C.W. Mills, *op. cit.*.

서 진행된 1875~1930년간의 獨占資本主義 단계에서 그들의 不在가 가져왔던 社會不安 등과 관련하여 中小企業 또는 舊中間階級 혹은 또 Mills의 white collar 중심의 新中間階級の 중요성을 論한다는 것은 時代錯誤이다. 勞動者의 經營參加와 共同決定이 보급되고 blue collar 勞動者의 經濟的 地位가 크게 개선된 現代社會에서는 數, 所得, 決定에의 參加權 등을 바탕으로 white 및 blue collar 勞動者가 競爭資本主義 단계에 있어 舊體制的 上層階級을 상대로 中小企業 등 舊中間階級이 한때 수행하였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sup>(19)</sup>

다섯째로 國民市場이라는 廣域經濟의 탄생이란 바탕 위에서 시작된 資本家의 生産樣式은 이제 技術과 資本 양면에서의 요구를 바탕으로 世界市場을 障壁없는 單一市場化하려는 움직임을 活潑化하고 있다. 共同市場의 결성, 國民企業의 多國籍化 등이 곧 그 現象形態이다. Toffler가 말하는 脫市場化現象은 충분히 근거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그것은 國民市場을 統合한 世界市場이 형성되고 기능한 다음 그것이 止揚됨으로써 시작될 것이다. 多國籍化, 超巨大企業化는 中小企業에게 Galbraith流의 生存餘白을 줄 것이고, 또 中小企業은 多國籍化하지 못한 大企業 또는 中堅企業에 비하여 월등히 유리한 基盤을 가질 수도 있다.<sup>(20)</sup> 그러나 이것이 巨大企業과의 상대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中小企業의 문제 그리고 中小企業 자체가 안고 있는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사실 Perlmutter가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한 것은 中小企業 중의 小企業 및 零細企業 쪽인 것이다.

끝으로 Scitovsky, Toffler, Galbraith 등의 理論 중 중소기업에 대해 그 장래를 약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부분은 사실은 이미 1947년에 J. Steindl의 古典的인 小著에서 모두 밝혀졌던 것들이다. 즉 Scitovsky의 金權支配的 需要나 Galbraith의 生産의 藝術性 등은 Steindl의 第二要因 즉 市場의 不完全성과 軌를 같이하는 것이고 Galbraith의 自己搾取論은 第四要因 즉 지극히 낮은 報酬로 매우 큰 모험을 무릅쓴다는 의미에서의 도박성과 관련된 다. Toffler의 주장은 직접적으로 도출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teindl의 第一命題 즉 大企業이 그 成長의 과정에서 미처 充足시켜 주지 못한 市場의 餘白과, 第三命題 즉 中小企業의 市場세어를 마저 뺏는 것의 無意味성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즉 大企業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에너지, 情報, 技術 등 諸體系가 이를 유도하고 需要構造, 生産組織, 勞動組織들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中小企業 淘汰的인 大企業發展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企業과 生産의 小規模化를 社會가 요구할 때 大企業을 위한 存立基盤은 상실된다.

(19) 拙稿, 中間階級에 대한 經濟學的 考察, 「社會研究」第二輯, 1979.

(20) H. Perlmutter, *Some Management Problems in Spaceship Earth; The Megafirm and the Global Industrial Estate, Proceedings of the 29th Annual Meetings of the Academy of Management.*



分散的인 經濟主體가 자신의 勞動의 生産物인 生産手段=財産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商品을 생산하여 give and take의 大原理 위에서 자유로운 契約을 통해 契約當事者간의 利益을 調整해 가면서 자신의 商品을 자유롭게 處分한다는 原子論的 社會像 (atomistic conception of society)이 바로 近代市民法이 보호, 유지하고자 하였던 社會이고 그 社會의 經濟的 主人公이 獨立的 生産手段의 소유자인 中小企業=小商品生産者였다. 그러나 資本의 原始的 蓄積의 진행과 더불어 所有와 勞動의 一致가 무너져 Smith가 강력히 주장했던 바와 같은 一人所有主겸 生産者겸 經營者 (one man owner-producer-manager)的인 企業가와 또 그들간의 自由契約이 없어지고 生産手段의 排他的 所有를 바탕으로 한 大企業들이 市場支配를 목적으로 한 契約 즉 카르텔, 트러스트 등을 恣行하고 다른 한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take it or leave it的인 附合契約을 일반화시킨 獨占資本主義 이후의 社會에 있어서는 中小企業은 이미 原子論的 社會에 있어서의 中間階級은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가 市場支配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企業活動, 즉 獨占을 목표로 한 競爭強化든 共同支配를 목표로 한 明示的 契約 또는 暗示的 合意든 이러한 활동을 금지하지 않거나 못하는 資本主義組織下에서는 大企業과 中小企業간에는 本質으로 零和게임 (zero-sum game)的인 관계 밖에 존재할 수 없다. 다만 時代에 따라, 또 國家에 따라 中小企業의 消長에 다소의 相異가 있는 것은 그 社會의 資本主義 經濟組織이 競爭的, 獨占的, 計劃的, 福祉的인 성격중 어떠한 쪽을 농후하게 갖고 있는가 하는 色彩밸런스에 起因하는 것이다.